농정연구세미나 토론요지(2012. 10. 31)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박사님의 주제발표 내용에 공감합니다. 미래 곡물시장 트렌드의 3R(부족, 위험, 진화)의 상황에서 식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불안정하고, 식품안전이 위협받는 3不시대가 올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이러한 세계 식량위기 상황의 시작은 미국의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로 잉여농산물의 시대가 끝나고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의한 잦은 기상이변과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동물성식품 소비증가가 곡물가격을 치솟게 하고 있습니다. UR협상과 WTO를 통해 세계 경제질서가 분업화 자유무역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식량자급을 확보한 선진국들은 이익을 보는 반면 비교우위 경제이론을 맹종하고 식량자급을 게을리 했던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다행이도 중화학공업과 전자산업에 매진하여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하여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식량부족으로 돈을 주고도 사올 식량이 없는 상황이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늦었지만 수출산업을 위해 포기했던 농업과 식량산업을 되살려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의 식량자급률(22%)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출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농수산업과 식량산업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느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핵심 중장기 농정 방향을 발표한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제목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것은 ’우리 농업 희망이 없다‘ 였습니다. 허다한 이슈들이 나열되었는데 세계 식량부족을 대비해서 식량자급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일부 토론자들이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부족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돈이 있어도 사올 식량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농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 식량사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식량을 증산하고 자급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정부투자를 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농수산식품부나 농업계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쌀을 겨우 자급하는 것을 전체 식량이 남아도는 것으로 농업계마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농업에 희망은 없습니다.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언합니다.

1. 쌀과 식용콩의 자급은 반드시 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2. 쌀의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우리쌀이 최고의 품질로 생산, 저장, 가공, 유통되도록 한다.
3. 녹색성장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4. 식량비축제도를 강화하여 쌀과 주요 곡물(콩,밀,옥수수)로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한다.
5. 농업 생산과 가공 유통이 연계되는 유럽형 농업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6. 농업의 환경 개선 기능을 우리사회가 돈으로 지불하게 해야 한다.(농민의 기초생활비 보장, 영농재해보상 명령제도 도입, 영농인의 탄소배출권 부여 등)